

보도일시	2022. 1. 18. (화)		
단체명	선대위 남북고속철도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효은 · 안호성 · 양기대 · 이근규 · 조민행 · 진장원 · 최용규
담당자	정혜아비서(010-5260-4712)	E-mail	8746195@gmail.com
사진	0	영상	X ※ 불임 자료 있음

민주당 대선 선대위 남북고속철도추진 특위 출범

-이재명 후보(서면축사) “KTX와 GTX를 넘어 ETX시대 준비 철저히 해야”
-양기대 위원장 “남북고속철도 시대, 위원회가 밑돌 놓을 것”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남북고속철도추진 특별위원회’가 1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발대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이를 위해 지금 해야 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대선 승리 시 남북고속철도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고속철도추진 특위는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민간전문가 6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앞으로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의 초석을 다진다는 것이 목표이다.

이재명 후보는 특위 상임고문인 노웅래 국회의원(서울마포갑)이 대독한 서면 축사에서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수년째 답보하고 있지만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며,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KTX와 GTX를 넘어 ETX(East asian Train eXpress · 동아시아 고속철도)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혀 남북고속철도추진 특위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기대 의원,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회장인 노웅래 의원과 남북고속철도 전문가,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염원하는 전국의 활동가 등이 참석하여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에 대비하여 미리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자고 뜻을 모았다.

양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남북을 잇는 고속철도는 한반도에 평화는 물론 남북 모두에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남북고속철도가 건설되면 북한을 거쳐 중국 베이징과 하얼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까지 5시간이면 갈 수 있는 ‘동북아 1일 생활권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참석자들은 앞으로 남북고속철도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것을 다짐했다. (끝)

[붙임자료: 행사사진]



